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리더스 다이어리

나가원 소위
육군1포병여단



육군1포병여단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군인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지난 7월 초임장교 여단 집체교육은 이 질문에 해답이 됐다. 나 혼자만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기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함께 나아가길 다짐했다.

집체교육 내용 역시 그 답이 됐다. 우리 여단이 창설 이후 걸어온 길은 수많은 선배 포병인이 닦아 놓은 것이었다. 단지 포를 쏘고 사격을 지휘하는 이가 아니라 ‘비호포병여단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 나갈 기회를 가진 사람’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또 『Serve to Lead』를 읽고 토의하며 리더십이란 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춤으로서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즉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때 전우들이 믿고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체교육 마지막 날, 여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돈과 명예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만이 군인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은 이 길 위에서 고민하는 우리를 일깨우는 밝은 빛과 같았다. 전투복을 입고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고 군인이 된 것은 아닐 터. 보이지 않는 진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포병의 역할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초임장교 집체교육에서의 깨달음은 곧 실전으로 이어졌다. 부대 복귀 후 최정에 포술팀 경연에 참여해 사격지휘병들과 문제를 풀어 보기를 반복했다. 처음엔 한 시간 넘게 소요됐던 기제표 풀이가 10분 이내로 단축됐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전우애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

고폭탄 사격훈련에서도 신속하게 사격 제원을 산출했던 호흡 덕분에 우리는 사격 임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총 43번의 ‘준비, 쏘!’ 명령과 발사 순간의 진동, 굉음은 목직함 성취감과 함께 강렬한 기억을 선물했다. 이를 통해 훈련과 실전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깨닫고 전시 승리를 위한 평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아직 소위이고 모르는 게 많지만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답을 찾아가고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고, 실패 속에서 성장하며 결국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는 장교가 될 것이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리더가 될 것을 다짐한다.

5분 대기조: 클래식인가, 구식인가

조명탄

김 용 우
월드투게더 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예선 여전히 5분 대기조 체제가 관성적으로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 출동이나 의미 있는 작전 수행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상급부대는 형식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현장에선 초급장교들이 주기적으로 대기조 임무를 이행한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일주일 동안 부대 내에서 대기하며 실효성 낮은 점검과 훈련을 반복한다. 형식적임을 알고 있지만 제도가 있으니 따를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초급간부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업무는 줄지 않아 남은 간부들의 부담은 커지고, 이로 인한 피로와 소모가 누적된다. 이러한 구조는 군 복무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작은 제도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의 제도 운용방식과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본질보다 형식이, 효율보다 관행

이 앞서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제도의 효용성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변화 대응력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구식 제도를 답습하는 낡은 군대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5분 대기조의 운영 목적과 효용을 재검토하려는 논의는 이미 여러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낮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속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단 헌병대에 기동성과 감시 능력을 갖춘 신속대응부대를 운영하고 오토바이, 소형차량, 드론 등을 활용한다면 돌발상황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대기인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작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조직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키고 변화하는 환경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제의식이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관행의 반복만 남게 된다. 따라서 5분 대기조 제도의 재검토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군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예비전력 정예화와 상비예비군, 미래 안보를 지키는 힘

기고

장 태 동 박사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장



화하고 예비군부대의 건제유지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체계도 보완하며 예비군의 훈련비를 현실화하는 등 동기 부여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상비예비군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다. 상비예비군은 예비군 중에서 평시에 부대로 소집해 연 15일에서 30일 정도 추가 훈련하는 예비군이다. 현재 동원사단 등 동원 위주부대에서 운용 중이고 단기 상비예비군 위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들을 관리할 핵심 요원으로 연 180일까지 추가 훈련·복무하는 장기 상비예비군을 소수 운용하고 있다.

현재 예비군은 훈련 간격이 길고 동원 이후 전력 발휘 수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전시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쟁의 승패는 발발 직후 며칠 안에 결정되므로 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전력 확보는 필수과제다. 상비예비군은 전역 직후 일정 기간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준비돼 있어 곧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전력이다.

특히 드론, 정밀유도무기, 사이버전 장비와 같은 첨단 무기는 일정한 숙련도와 반복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은 전시 초기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와 상비예비군 제도의 확대는 사회와 군 모두에 이익이 된다.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한 인력이 일정 기간 상비예비군으로 복무한다면 현역에서 배운 전문성을 군에 환류시킬 수 있고 사회는 숙련된 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국가 생존을 지탱할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 안보환경은 불확실하고 위협은 증대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경쟁,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될 수 있다. 병력자원은 줄고 위협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와 상비예비군 제도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와 군은 과감한 제도적 결단과 예산의 집중투자로 예비전력의 질적 증강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안보는 준비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 힘의 중요한 축이 바로 예비전력이다. 정예화된 예비전력과 상비예비군은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예비전력의 혁신적 변화를 시작할 때다.

국방일보

발행인 이은영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정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